

새로운 책



■ <법문사의 불지사리 1, 2>(예난·상청웅 지음, 일빛, 전 2권, 각권 1만2천8백원)=11월 11일부터 열리는 '법문사 불지사리 한국 이운 권선법회'에 맞춰 2000년 출간된 <법문사의 비밀>이 다시 출간됐다. 1981년 중국 시안(西安) 당나라 황실 사원 법문사의 13층탑이 무너져 내린 후 모습을 드러낸 지하공에서는 4cm짜리 부처님 손가락 사리를 비롯해 불상과 다구 등 중국 고대의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는 유물들이 다양으로 출토됐다. 이 책에서는 발굴조사 당시의 상황과 법문사에 불지사리가 모셔지게 된 역사적 배경, 지하공에서 발견된 유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요강도 때론 밭그릇이 됩니까>(폴브라더 지음, 이병원 옮김, 한인, 9천8백원)=요강의 용도를 모른 채 밭으로 사용해 온 이를 '더럽고 혐오스럽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아잔 차 스님은 묻는다. "한 번도 요강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그릇인데, 왜 이 상함을 역겨워 할까요?" 스님은 우리의 집착이 혐오스러움과 화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태국의 유명한 선승 아잔 차(1919-1992) 스님의 법문 모음집 <요강도 때론 밭그릇이 됩니까>에는 편견과 집착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



■ <도란도란 도 이야기>(김종업 지음, 리터스넷, 1만원)=국내 최초로 기(氣)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종업씨가 명상과 마음수행, 정풍과 도술 등 도(道)와 정신세계에 얽힌 이야기를 알기 쉽게 풀어간다. 지난 6월 명지대 대학원에서 '삼일신고(三一神論)의 수련 원리에 대한 현대적 해석과 방법론 이해'로 박사학위를 받은 지은이는 현재 한국정신과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으며 명지대와 장안대에서 단전호흡·기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 <매일리 닥터>(연세대의대 교수진 옮김, 아카데미, 전 48권, 각권 1만2천원)=영국의사회협회(BMA)가 1960년대부터 폐내고 있는 의학책인 '매일리 닥터' 시리즈 중 48권이 연세대의대 교수진에 의해 국내 번역됐다. '매일리 닥터'는 고혈압부터 암, 당뇨, 우울증, 스트레스, 치매 등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100가지 질병의 증상과 진단, 치료, 간호법 등을 제시하기 위해 펴내는 시리즈. 100여 쪽 분량의 책에는 각 질병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해당 증상별 의사 진단과 처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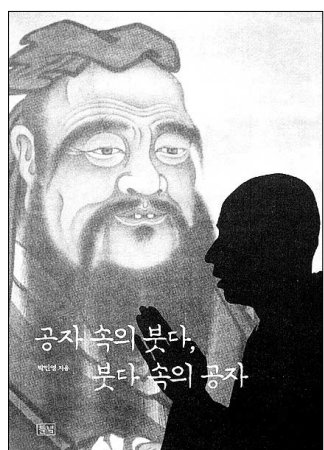
부처님과 공자 '담았네'

"나는 다행이다.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반드시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으니."
"그동안 나의 언어와 행동에 어떤 잘못은 없었는가?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이 있다면, 벗들이여! 부디 나를 가엾게 여겨 지적해 달라."

위의 말은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이고, 아래의 말은 <상응부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깨달은 이의 가르침과 실천은 일맥상통한다고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공자'와 '부처'는 동시대를 살며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인문출판사 편집장을 역임한 박민영씨는 공자와 부처의 가르침으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게 됐고, <논어>와 <잡아함경>을 통해 '신화화되기 이전의 공자와 부처의 모습'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처의 말 속에서 공자의 모습을, 공자의 말 속에서 부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

"공자의 계단에 한 발을 디디면 그것을 기반으로 그보다 높은 부처의 계단에 오를 수 있었고, 부처의 계단에 한 발을 디디면 다시 또 높은 공자의 계단을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처와 공자의 사상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이들은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한쪽에 대한 이해는 다른 한 쪽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공자 속의 부처, 부처 속의 공자 박민영 지음 | 들녘 | 9천원

당대 사회문제 풀기 위해 노력한 실천적 지식인의 모습 '잡아함경' '논어'에서 찾아

지은이는 공자와 부처의 사상 속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45가지 이야기 주제로 나누어 엮었다. 경전에 기록된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나 함축적 표현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쉽게 풀어서 부처와 공자의 가르침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고, 어떤 의도를 담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상응부경전>의 '색(色)에 집착할 때 악마

에 붙잡힌다. 집착하지 않는다면 악마로부터 풀려난다"는 구절과 "번지르르한 말과 번지르르한 외양(色)이 어질인 경우는 드물다"는 <논어>의 구절을 통해 지은이는 공자와 부처 모두 물질적 세계 특히 몸에만 갇힌 인간의 마음을 해방시키려 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부처가 몸의 감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랐듯이, 공자 역시 눈에 좋게 보이는 것을 탐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몸에 갇혀 있는 시야를 벗어나 세계를 바르게 볼 수 있으며, 그레야 마음에 바른 도덕이 깰듯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공자와 부처는 도(道)가 만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아무리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멸시하지 않고 아무리 하찮고 평범한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 예로 공자는 측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란 세력의 수장인 필힐을 만났고, 부처님은 살인자 양굴리발라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이 밖에도 '큰 깨달음 작은 말' 깨달은 자의 고독, '깨달은 자의 사회적 책임' '종교 관념의 핵심' '벗의 가치' '악의 실제' 등 각 상황에 대한 공자와 부처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공자와 부처 사상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시대 진정한 지식인이자 실천가로서의 공자와 부처를 만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간절히 그리워하면 꼭 이루어진다

'인연'은 어떻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일까? 일찍 부모님을 잃은 준이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할머니와 함께 묘역사에 오게 된다. 하지만 준이는 학교를 그만둔 것도, 친구들과 헤어진 것도, '타고난 스님'이라는 할머니의 말도 명 따지지 않는다. 자신은 스님 대신 공군 전투기 비행사가 되고 싶기 때문이다. 묘역사에 살고 있는 동자승과 여자아이 금란이와 함께 불교 공부를 시작하게 된 준이는 하루빨리 큰스님을 만나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절을 내려가고 싶은 마음뿐이다.

어느 날 준이는 묘역사의 관음벽화를 1천년 전 신라 시대의 해린 공자가 그렸고, 그 관음보살의 주인공이 선각대사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그런데 얼마 후 큰스님은 준이에게는 선각, 금란이에게는 해린이라는 별명을 내려준다. 1천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뛰어 만나게 된 준이와 금란이. 하지만 준이는 비행사가 되고 싶은 꿈을 버리지 못하고 묘역사를 나와 발걸음을 옮긴다.

소설가 유희종씨가 쓴 <보리밭나무>는 천 년을 건너 계속되는 인연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만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여 준다. 유씨는 "동화를 통해 간절히 그리워하는 것은 다음 세상에서라도 꼭 이뤄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며 "우리 인연의 실마리가 얼마나 정교하고 다양하게 얽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동화 뒤면에는 '스님들은 어떻게 생활할까'란 코너를 두어 식발과 수계, 발우공양, 토굴수행 등 절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보리밭나무 유희종 글 | 김성희 그림 계수나무 | 8천원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영양! 건강 대안사냥의 인기제자인 대원문계현 선사님이 역저한 <보리밭나무> 선문영양! 전30만권 7년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창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유식무경에 감춰진 존재의 비밀 최경호 지음 경서원 3만5천원

유식무경으로 본 하이데거

'노동하는 철학자' 최경호씨가 '유식무경(唯識無境)'의 사상체계를 밝히는 <유식무경에 감춰진 존재의 비밀>을 펴냈다. 지난해 <존재에서 규명된 산>을 펴낸 후 '유식무경'이란 주제에 사로잡힌 그는 9개월 간의 작업 끝에 이번 책을 집필했다. 유식무경은 대승불교 유식의 기본 사상으로, 식(識)만 있고 그 식의 대상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명제다.

"지난 3-6월 일하는 내내 '유식무경'이란 하나의 주제에 몰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유식무경'을 하나의 화두로 삼고 있는 상태로 지낸 것이 아니라 유식무경이란 명제를 통해 경험한 사대 자체로서의 존재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새벽에 공사장을 향하는 전철 속에서도,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유식무경'에 대해 고민했고, 저녁이면 관련 서적을 탐독하며 생각의 깊이를 더했다.

'유식무경의 입장에서 하이데거 존재론의 새로운 정립'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최씨는 "유식학을 하이데거의 존재론 빌어 고찰하고 규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이데거의 존재론을 유식무경의 입장에서 새롭게 정립했다"고 자부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은이는 "하이데거의 '존재'란 인간에게 있어 근원적인 식(識)으로서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정립된 존재론"이라고 사실을 밝히고 있다.

여수령 기자

현광 스님 수행한담

이 좋은 아침에 아직도 잠만 자고 있느냐 현광 스님 지음 | 학수림 | 9천5백원



"오늘날은 다종교 사회라 별의별 종교가 많지만 마음공부만은 부처님 말씀 아니고서는 근본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부디 정법에 귀의해 정진하라. 아직도 잠만 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이 좋은 아침의 밝은 세상을 맞이하라."

대전 불광사 주지 현광 스님의 예세이집, '죽비'를 부제로 삼은 이 책에서 현광 스님은 자신의 수행한담과 다양한 경전설화 소개, 불교 기초교리 해설 등을 담았다. 또한 불교 교리와 수행과정 등을 설명함으로써 인생의 근본문제를 제기하고, 불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공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불자들이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2006학년도 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생 모집요강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정	학과	전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 불교(석, 박사) - 역경(석, 박사) - 실천불교(석, 박사)(포교사회) - 불교문화재학(석사)	석사 30명 박사 10명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석사)	

2. 지원자격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 박사과정은 석사학위취득예정자 또는 취득자
 -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된 타 종단 승려
-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 1) 원서 교부 : 2005. 10. 17(월) ~ 10. 28(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 2) 원서 접수 : 2005. 10. 31(월) ~ 11. 4(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 3) 전 형 일 : 2005. 11. 10(목) 10:00 (박사과정) / 14:00(석사과정)
 - 4) 합격자 발표 : 2005. 11. 15(화) 11:00
 - 5) 등록 기간 : 2005. 11. 16(수) ~ 11. 22(화)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서류전형 및 면접으로 선발
 - 박사과정 : 논술(A4용지 1매내외)

5. 제출서류
-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 3) 석사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 박사 : 대학원졸업(예정)증명서 1부
 - 4) 석사 : 대학 / 박사 : 대학원전학년성적증명서(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 5) 승적증명서(3개월 이내) 1부. (최중수제일 기입 요)
 - 6) 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 (타 종단 스님)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흰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적인 아나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